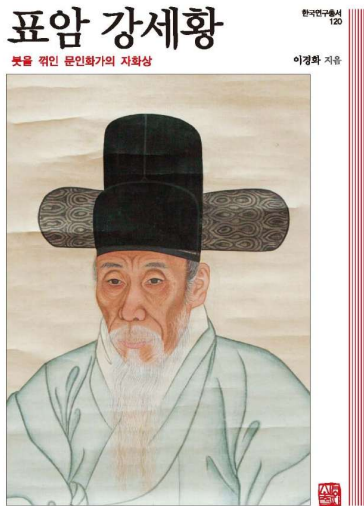


서평

이경화 지음,
『표암 강세황: 붓을 꺾인 문인화가의 자화상』
(돌베개, 2024)

이성훈*



이경화의 『표암 강세황: 붓을 꺾인 문인화가의 자화상』(소명출판, 2024)은 조선 후기 화단에서 ‘시·서·화 삼절(三絶)’로, 최고의 서화 비평가로 평가를 받는 표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예술 세계와 내면을 밀도 있게 살핀 역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를 독자적인 남종화풍을 이룬 문인화가란 관념적이고 전통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출사(出仕), 가문의 부흥 등 사회적 책무를 지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그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찬찬히 훑는다. 회화를 천기(賤技)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팽배하던 시대에 그가 서화 제작에 매진하며 자신이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내면

적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했으며 이를 자신의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투영했는지를 밀도 있게 추적한다.

* 부산광역시 학예연구사

이 책에서 저자는 강세황에게 회화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낸다. 저자는 강세황에게 그림은 무신란(戊申亂)에서 기인된 가문의 몰락과 이로 인해 불투명해진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생긴 우울증[幽憂之疾]을 극복케 하고 문인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게 한 방편이자 도구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파(自派) 및 남인계 문사들은 물론 소론 등 타 당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예단(藝壇)의 중추적 인물이란 그에 대한 칭송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한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강세황과 그의 예술 세계를 사회문화사적인 틀에서 바라보는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강세황이란 화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세황이 남긴 거의 모든 작품을 조사해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분석한 작품은 단연 강세황이 1782년에 제작한 <70세 자화상>이다. 저자는 아인의 옷에 관모를 쓴 이색적인 복장으로 형상화된 강세황의 모습을 그가 여러 차례의 자화상 제작 시도를 거쳐 도달한 자기 탐색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평가한다. 회화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한 작품으로는 기유년(1789)의 <피금정도>가 있다. 그는 이 그림에 대해 문인화의 지적이고 추상적인 화면 구성법을 실경에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으로, 또한 그가 문인화가로서 평생 지향한 바를 구현한 그림으로 평가한다.

『표암 강세황: 붓을 쥐인 문인화가의 자화상』은 강세황을 중심으로 형성된 18세기 ‘예원의 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중국과 한국 회화사는 물론 조선 후기 문단과 정치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유려한 글에 더해 풍부한 컬러 도판은 독자로 하여금 강세황이 주축이 되었던 18세기의 화단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강세황의 예술적 성취가 그의 전형적인 사대부로서의 삶과 역정(歷程)에 연동되어 나타난 결과처럼 읽히는 점이 그것이다. 동시대 다른 문인 화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독자성을 더욱 선명하게 대비하여 그의 예술적 성취를 분석하고 부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